

마당예술동아리'어수선' 강사 이야기 [인터뷰]

<어수선>

마당예술강사 _ 오지나

마당지기 _ 조현경

회원 _ 김성형, 김명순, 김태은, 김행화, 안선희, 조은영, 조형란, 황순녀

인터뷰 일자 _ 2022년 12월 22일

인터뷰 장소 _ 온라인 줌

인터뷰 _ 미추홀학산문화원

Q. 2022년 어수선 교육 및 활동에 중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이나 동네의 이야기를 담아내자고 할 때 '과연 지역성을 잘 담아내고 있을까. 우리 이야기가 잘 담א지고 있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깊이 있게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재개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올해는 그 면면이 속속들이 알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게, 관계에서 끈끈해지면서 부터 입니다. 어수선 동아리 회원들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코로나를 소재로 한 것이 더 중점이었는데, 올해는 좀 여유가 생겨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17년도 18년도에 진행했던 활동을 교육안에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 나를 끄집어 내는 활동 등을 해보았습니다.

Q. 올해 마당예술강사 활동 소감을 들려주세요.

동네를 알게된 점. 어떤 작품을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그 긴 역사와 세월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 집도 아닌데 감정이 입이 되었습니다. 서럽고.

동아리 회원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제물포 북부 쪽 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데, 동네에 대한 감흥이 달리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자세히 마을을 보게 되니까. 애정이 생겼습니다. 회원들도 집을 담아내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예술로 담아내는 마을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학산에서 이야기 하는 마을을 담아내고 지역을 담아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을 하고 나서, 이제야 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취지를 깨달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놀래’ 마당에 다시 나와서 마당극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극적 재미나 워트보다는 정통마당극을 생각했는데 동아리원들도 관객들에게도 통했다면 좋겠습니다.